□ 연구논문 □ http://dx.doi.org/10.16936/theop..34.201905.59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영성을 위한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

서동수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 강사

서론
1.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원리로서 성서
1.1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의 본문 구조와 주석
1.2 하느님의 조명(θεόπνευστος): 교육원리의 근거와 권위
1.3 성서의 본질적인 특성: 구원의 지혜
1.4 신앙교육의 방향: 온전함
2.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들
2.1 교훈(διδασκαλία: teaching/Belehrung)
2.2 책망(ἐλεγμός: reproof/Zurechtweisung)
2.3 교정(ἐπανόρθωσις: correcting/Besserung)
2.4 훈련(παιδεία: training/Erziehung)
결론

서론

그리스도교 신앙(믿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과연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구도에서 공포로 다가오는 영원한 하느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천국 입성만을 지향하는가?[1] 구원은 분명 그리스도교 복음전파의 초기상태에서 어느 정도 신앙 목표로서 타당성을 담지할 수 있으나 신앙의 성장 혹은 성숙을 말하여야만 한다면 신앙의 목표로 단지 종말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구원을 설정하는 것은 분명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신앙(믿음)을 이전의 종교적인 신비 체험자 혹은 선각자가 경험한 사실이나 그들이 선포하는 교리적인 차원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수용하는 단순한 정적인 상태의 인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전인적인 삶의 끊임없는 과정의 방향성과 역동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면, 아직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지속되는,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할 그 무엇인가로(참조. 히브 11,1),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여야 한다(필리 3,10-14).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보통 신앙생활의 방향성, 즉 영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때 영성은[2] 자연스럽게 '자율과 책임의 주체성을 소유한 한 인간의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삶(몸과 마음)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된다.

신약성서에서는 이 신앙(영성)의 방향성 혹은 본질적인 목표를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Imitatio Christi)으로 표현하고 있다.[3] 이 목표는 삶의 모방 내지는 동질

---

1) 성서의 본문에서도 이런 입장이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사도 16,31이다. 그리고 이 사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 신학에서 의화론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로마 2,6-16; 마태 7,21-23; 요한 15,1-2; 루카 10,25-28의 문맥은 종교개혁 신학의 구원론과 상이한 행위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화론 사상만을 신약성서의 구원론의 근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영성 개념은 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정보획득을 위한 대표적인 번역서로 마이클 다우니,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옮김, (서울: 은성, 2001), 29-32를 보라. 시대별 영성 이해에 대하여는 조던 오먼,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홍근·이영희 역, (칠곡: 분도출판사, 1998)을 보라.

3) 이미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논하는 서동수의 논문, 「신약성서에 나타난 윤리적 공리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20(2013), 225-265,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마태복음 5:48에 나타난 인간존재와 실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지구촌 신학』, 13(2006), 48-71,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마가복음 7:20-23에 나타난 인간의 마음과 Imitatio Christi」, 『신학과 목회』, 44(2015), 417-440, 신앙 영성 원리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인간욕망의 극복을 위한 신앙영성의 원리에 대한 성서적 연구」, 『신학과 철학』, 24(2014), 225-253을 참조하라.

의 체현의 요청에 해당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어(마르 1,17), "하늘의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산상수훈의 교훈(마태 5,48),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헌신적인 복음선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그의 편지(갈라 4,19), 유기체적인 교회론에서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지체들이 성장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에페 4,15) 등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는 성장(1코린 3,1-3)과 말씀(성서 혹은 복음)에 대한 이성적 판단 혹은 지혜를 통한 -성장의 질적인 승화인- 성숙의 마지막 단계(히브 5,12-14)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성서는 제시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은 신앙의 장구한 노정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필리 3,12-14), 혹은 신 앞에 서야 할 본연의 성숙한 인간의 완전한 상태(히브 10,22-25)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순하게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전제로 한[4] 신앙의 최종적인 성숙 단계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신앙영성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성서는 밝혀주고 있다. 이를 가장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의 경향은 그리스도교 영성신학의 원리로 이 성서 본문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대화를[5] 시도한다.

신앙의 동인(動因):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삶의 방향성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한 우월한 가치부여를 의미한다. 그래서 삶의 목표지향성은 그 사람의 가치척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가리킨다. 역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

4) 이 입장은 최근 대두된 'New Perspective on Paul'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리고 대리적인 죽음에 나타난 하느님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차후 인식에 해당한다.

5) 대화의 방법은 가장 원론적인 역사비평적인 해석학의 수단인 본문비평을 통하여 성서가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내고 배열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아울러 사도 바오로의 신학전통을 계승한 흔적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알기 위하여 문헌비평을 병행하여 연구본문에 접근할 것이다.

난다. 이제 Imitatio Christi 혹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6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4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본질인 Imago Dei를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신적 연원을 소유한 영원한 절대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방향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목표 지향으로써 가치 추구는—하느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선언하는 코헬렛 3,11에 의하면—인간의 생득적인 본성에 해당한다. 종교가 부정되는 현대인의 의식 속에서는 이 인간 본성의 규정이 거부당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것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한다면 이 정의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신의 절대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설정과 생의 목적의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혹은 본성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형질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정도를 걷지 못하고 욕망에 유혹되어 방황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1,18-23) 인간을 선도하는 총체적인 삶의 표준과 원칙이 요청된다. 이른바 최고의 가르침으로서 종교(宗敎)는 대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전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그 경전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길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서가 신앙영성을 추구하는데 어떤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 어떤 교육 목적을 지향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하여 내면적인 면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의 차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퇴락하여 가는 현대인에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기복신앙에 물들어 가는 한국교회에게 '하느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참다운 본질에 대한 각성과 회복을 위하여 성서에 나타난 영성훈련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배움은 필수불가결한 절대적인 요청과 도전으로 다가온다.

1. 그리스도교 신앙교육의 원리로서 성서

1.1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의[6] 본문 구조와 주석

14절: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는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

6) 번역은 저자 자신의 사적인 번역에 해당한다.

15절: 그리고 너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만드는 성서를 알고 있다.

16절: 모든 성서는 하느님의 숨결(영감)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로운 훈련에 유익하니

17절: 하느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에 완전히 구비되기 위함이다.

전체 본문 14-17절의 구조는 상세하게는 1-9절에 묘사되어 있지만 이를 요약하는 바로 앞의 13절에 나타난 불경건한 자들의 비도적적인 삶과 대비된 신앙인의 경건한 삶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을 설명하기 위한 문맥을 형성하고 있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7]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편지의 저자는 10-12절에서 수신자에게 자신을 하나의 구체적인 귀감으로 제시한다. 14절은 수신자의 자아성찰을 촉구한다. 15절은 성서의 특성을 설명하고 16절에서는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을 열거한다. 마지막으로 17절은 성서(경전)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14-17절 전체의 문맥은 성서가 완전함에 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영성의 훈련방법을 제시하는 원론적인 안내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

14절: 14절은 이미 1,13에 언급한 내용의 반복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역접기능의 접속사 '그러나'는 논지와 권면이 새롭게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를 사용할 수 있는 논거는 티모테오의 배움이 1-9절에 나타난 비-진리와 욕심에 이끌린 부도덕과 무절제의 향락적인 삶의 불경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심의 정결함과 경건을 통한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혹은 정통적인 참 진리의 배움에 있음을 보여준다. 서신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볼 때, 3,4의 불경건과 비-진리의 세상적인 삶의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된 모세 시대의 얀네스와 얌브레스는 실제로 1,15절의 피겔로스와 헤르모네게스, 2,17의 히메내오스와 필레토스, 4,10의 데마스, 4,14의 알렉산드로스로 구체화 되고, 이들은 티모테오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구체적인 반면교사로 제시된다. 그러나 티모테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 즉 진리와 경건에 대한 배움은 그에게 구원의 길과 방편이 되는

7) C. M. M. Prior, *Paul the Letter-Writer and the Second Letter to Timoth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07-162; Philip H. Towner, *The Goal of Our Instruction: The structure of Theology and Ethics in the Pastoral Epistles*, (Sheffie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240.

교육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도덕성을 견지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된다. 배움의 대상은 다시 15절에서 '성서'로 명확해진다. 바오로 서간의 전통에 따르면 이 배움은 아직 문서로 정착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청취, 곧 들음을 의미할 수 있다(로마 10,13-14; 1테살 2,13). 여기서 15절에 등장하는 성서의 정의가 단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구약성서만을 의미하는지[8] 아니면 더 확대된 개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라는 문장의 의미는 그를 가르친 교육자 자신이 경건한 신앙의 도덕성을 삶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 티모테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권위를 전제로 한다.[9] 어떤 면에서 신앙은 신앙으로 계승된다. 그래서 '너는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서서히 신앙 전승을 위한 성서의 수집, 신앙의 동일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만찬의 정립,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이단과 정통 신앙의 구분,[10]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음의 선포를 위한 성직 제도의 정착 등 4대 기준과 원칙을 통하여 제도권 교회로 정착되어 가는 초기 가톨릭 주의를(Fruehkatolizismus)[11] 배경으로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이 집필됨을[12] 보여주고

---

8) W.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73), 109.

9) F. Young, *The Theology of the Pastoral Le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88.

10) J. Blank, "Zum Problem 'Haeresie und Orthodoxie' im Urchristentum", in *Zur Geschichte des Urchristentums*, ed. J. Blank et al., (Freiburg: Herder, 1979), 142-160.

11) F. Vouga, *Geschichte des fruehen Christentums*, (Tuebingen: Franke, 1994), 235-244; 그리고 1. an amplified emphasis on tradition; 2. the collection and organization of an apostolic canon; 3. the replacement of the charismatic community with a hierarchically church; 4. a growing distinction between clergy and laity; 5. a static conception of faith 6. an increased sacramentalism; 7. a diminished apocalyptic perspective 등 7개의 요소를 말하는 C. Clifton Black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로는 David J. Downs, "'Early Catholicism' and Apocalypticism in the Pastoral Epistles", *CBQ* 67/4(2005), 641-661, 특히 642를 참조. John H. Elliot, "A Catholic Gospel: Reflections on 'Early Catholicism' in the New Testament", C*BQ* 31(1969), 213-223; J. Roloff, "Pastoralbriefe", *TRE* 26(1996), 50-68, 특히 56을 참조하라.

12) 저작 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바오로의 친서로 보는 입장에서 60년대로 보는 William M. Ramsay,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Kregel, 1996), 20-21. 바오로 학파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익명의 저자의 글로 보아 100년 경으로 계산한 예시는 J. Roloff, *Einfuehrung in das Neue Testament*, (Stuttgart: Reclam, 1995), 207; U. Schnelle,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384, 각주 118; 100-140년 사이로 보는 입장으로는 F. Vouga, *Geschichte des fruehen Christentums*, 11; Burton L. Mack, *Who Wrote the New Testament? The Making of the Christian Myth*, (New York: Harper

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티모테오의 신앙교육이 전통의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암시한다. '배우고 확신하는 것에 머물러라' + '너는 알고 있다'의 결합구조는 바른 신앙의 전승은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피교육자 자신의 자율성과 의지적인 책임 의식이 성숙되었기에 그 스스로 자신의 신앙적인 삶의 노정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문장 형식에 해당한다. 즉 진정한 교육은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에게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암시한다. 타인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과 타인에게 배우기만 하는 것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의 성서 교육사상에서 거리가 멀다.

15절: '어려서부터(ἀπὸ βρέφους) 성서를 알고 있다'라는 문구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어머니 에우니케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한(2티모 1,5)—유년시절의 조기교육에 해당하는—어린아이 시절부터 사춘기, 청년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티모테오의 신앙 교육의[13] 연한이 꽤 오래 됨을 알려 준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티모테오가 신앙 교육을 받았다면 5살에 이미 구약성서 교육을 접하게 된다.[14] 이미 티모테오는 성인이 되었고 현재 교회의 신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바오로가 티모테오를 믿음의 아들로 부르는 데 나타난 선교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2티모 2,1-2),[15]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διὰ πίστ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라는 문구의 뜻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를 통한 일관된 교육이 사도 바오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구의 신학적인 의미가 지금 학계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구원의 척도로써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제시하는 '바오로에 대한 새 관점'(New Perspective on Paul)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을 가리키지 그리스도에 대한 티모테오의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16] 자신의 순종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은 다

Collins, 1995), 206.

13) Thomas C. Oden, *First and Second Timothy and Tit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23;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 to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1), 838.

14)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109; William D. Mounce, *Pastoral Epistles* (Nashville: Thomas Nelson, 2000), 564.

15) 사도 바오로와 티모테오의 교육을 통한 신앙전승의 관계에 대해서는 M. Wolter, *Die Pastoralbriefe als Paulustraditio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214-222를 참조하라.

음 단계로 티모테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 즉 지혜 혹은 바오로가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0,2에서 말하는 지식(ἐπίγνωσις)에 도달하게 한다.

14절에서 티모테오가 배워 알고 있는 것은 15절에서 거룩한 문서들(τὰ ἱερὰ γράμματα)로 중성 복수명사로 언급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서는 다양한 개별적인 문서들의 집합체에 해당한다. 16절에서는 성서를 가리키는 중성복수 명사가 통칭명사의 역할을 하는 여성 단수명사인 모든 문서(πᾶσα γραφή)로 기록되고 다시 4,2에서는 말씀(ὁ λόγος)으로 표현되어 4중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표현은 복수 의미의 형용사 '모든'과 단수의 명사가 결합된 역설적인 형식을 이루지만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서는 일차적으로 당시 유대교의 '정경'개념에서[17] 볼 때, 단지 현재 가톨릭 교회가 수용하는 46권, 개신교인들이 수용하고 있는 39권의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상황과 종교 교육의 실태를 감안한다면 칠십인역에 수록된 15권의 외경 외에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문헌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된다. 성서는 구약성서(칠십인역 혹은 마소라 사본)로 한정되는가? 만약 15절과 16절의 성서가 오직 지금의 가톨릭 교회의 46권, 혹은 개신교의 39권으로 규정되는 구약성서만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교의 경전에서 신약성서 27권은 정경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난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느 신약성서 저자도 자신의 글을 성서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후대에도 성서로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고 저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성서를 구약성서로 제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13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5-16에 나타난 일반적인 그리스도교의 성서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획기적인 다른 단서를 제공한다.

---

16) 만약에 티모테오 자신의 믿음, 즉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의화론의 신학을 말하는 본문이 되려면 티모테오를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유격 '너의(σοῦ)'가 믿음이란 단어 뒤에 첨가되어야 한다. 티모테오 자신의 믿음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Luke T. Johnson,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420; Hermann von Lips, *Glaube – Gemeinde – Am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27에는 반대한다.

17) E. Schott, "Kanon", *RGG* III(1963), 1116-1118, 특히 1117을 보라. 쇼트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정경 개념이 행위를 규정하고 귀감을 설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다.

> 이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바오로가 테살로니카 공동체에게 전한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대한 선교적인 차원의 구두의 메시지로서 '복음'을 의미한다. 이 복음의 구두 메시지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분위기는 차차 문서화되고 문서개념으로 마르코복음서 1,1('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에서 그 전형적인 실례가 등장하는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독특한 문학의 장르로 정착되고 이 복음서가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로 인정되어 공동체에서 신앙의 지침서로서 권위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런 입장은 이 세대의 마지막 때에 하느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복음의 의미를 규정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2('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고대하던 초기 공동체의 상황에서 이런 신학 이해가 보편적이었다면, 이단 사상과 대항하고 유대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권 종교로 생존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던 초기 가톨릭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목서간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함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이것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5-16에 두 번 등장하는 성서의 개념은 볼렌베르그(Wohlenberg)와 멍크(Willam D. Mounce)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18] 지금의 개신교 신앙의 정경으로 확정된 신구약성서 66권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광범위하게 이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수집되어 사용되고 있는 구약외경을 포함한[19] 모든 문서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새로운 성서 개념이 그리스도교 집단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대교와 구별되고 독립된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발전하고 정착하지 못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

18) Mounce, *Pastoral Epistles,* 568;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110에서 재인용. 그러나 Mounce, *Pastoral Epistles,* 565는 티모테오 서간에서 말하는 성서를 구약성서로만 정의한다.

19) 이렇게 구약외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신약성서 전체에서 구약외경이 약 320군데 정도 어떤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어떤 경우는 의미상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Lee M. McDonald,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Biblical Canon*, (Peabody: Hendrickson, 1995), 259-267. 반면에 구약외경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시에 수집된 바오로 서간을 포함하여 성서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박익수, 『디모데전.후서/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62 참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의 지혜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성서라면 바오로가 동족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무지로 정의한 것에 명시되는 것처럼(로마 10,2) 혹은 성서를 자신에 대한 기록으로 규정하는 예수 자신의 말대로(요한 5,39) 성서의 특성은 영지적이다.[20]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를 능가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정의된다(1코린 1,30; 2,6-8).

16절: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성서의 효용성과 교육적인 기능에 대하여 짤막하게 언급한다: 인간의 교훈과 책망과 교정과 의의 교육에 유익하다(ὠφέλιμος). '유익하다'라는 성서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이해는 단지 신앙을 관념의 세계에 머물지 않는, 도리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유익함의 이유는 '하느님의 영의 조명(θεόπνευστος)'에 의하여 성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의 영감론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신학 전문 용어로서 '하느님의 조명'은 성서의 권위와 진리로서의 진정성을 담보해주기 때문에 공동체는 성서를 자신들의 신앙 지침서로 사용하는 근거로 삼는다.

17절: 여기서 분명하게 성서 교육을 통한 신앙 혹은 신앙영성의 목표지향성이 제시된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종교개혁 신학, 특히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근거로 하여 루터(M. Luther)가 말하는 죄인으로서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화와 구원에[21] 놓여있지 않고 인간의 완전한 단계를 상징하는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한다. 본문은 희생제물의 외형적인 모습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성전제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텔레이오스'(τέλειος)[22] 대신에 도덕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완전함을 나

---

20) 성서의 영지적인 특성은 티모테오 서간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1티모 1,4; 4,3; 6,20ff; 2티모 2,18; 3,7; 티토 1,16) 방어하기 위한 상황에서 저술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에 볼 때 매우 역설적이다. 그리스도교적인 영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앎으로서 구원의 지혜로, 이단의 영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영지주의의 저술동기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조하라. M. Wolter, *Die Pastoralbriefe als Paulustradition*, 257-259; Roloff, "Pastoralbriefe" 57; E. Schuetz, *Werdende Kirche im Neuen Testament: Eine Einfuehrung in die Pastoralbriefe*, (Kassel: Oncken, 1969), 125; Helge Maehlum, *Die Vollmacht des Timotheus nach den Pastoralbriefen*, (Basel: Friedrich Reinhardt Kommissionsverlag, 1969), 33; W. Schmithals, *Neues Testament und Gnosis*, (Darmstadt: WB, 1984), 89-95;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83), 63.

21) 루터의 이런 입장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학자는 K. Stendahl, *Paul among Jews and Gentiles*, (Philadelphia: Fortress, 1976)이다. 스텡달은 그의 책 78-96쪽에서 바오로는 자성적인 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그의 신학적인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을 집필하였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타내는 형용사 '아르티오스'(ἄρτιος)와 동사 '엑사르티조'(ἐξαρτίζω)의 수동형 완료분사 ἐξηρτισμένος(완전하게 된)를 사용하여 인간의 바람직한 상태로서 도덕적-인격적인 완전함에 도달하도록 돕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영성원리로 성서를 규정한다.

1.2 하느님의 조명(θεόπνευστος): 교육원리의 근거와 권위

신앙의 척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성서의 본질과 권위는 '테오프뉘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 즉 하느님의 조명으로 되었다는 규정에서 명백해진다. '테오프뉘스토스'는 하느님(θεός) + 숨쉬다(πνέω)의 합성동사의 완료형분사의 남.여성형의 공통형태로 술어적인 용법으로[23] 사용된 것으로— 따라서 '성령의 조명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해석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포의 권위를 표현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게 임하시어'에 부합되는 형식에 해당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야훼계 문서의 인간 창조 기사에서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하느님의 숨결(생기)을 연상시키지만(창세 2,7) 신약성서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전문용어에 해당한다. 요세푸스(Josephus, *Ap.* 1.31ff)나 필로(Philo, *Spec. leg.* 1.65; 4.49), 그 밖의 유스티노(Justinus) 같은 그리스도교 교부의 성서 영감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24] 초월자 하느님의 개입과 영향력이 용해된 신성한 책으로(비교: 2베드 1,21) 성서를 높이 평가하고 또 수용함으로써 성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위에 유일한 신앙의 척도와 안내서로 역할을 감당하는 근거와 권위를 소유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는 인간을 통하여 전달될지라도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인간의 정신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하느님 자신의 직접적인 활동의 산물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된다.[25]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의 권위는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의 형식으로 정착되고 일반화되었다. 결국 하느님의 직접적인 활

---

22) 그렇지만 텔레이오스의 이차적인 의미는 도덕적, 인격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와 아르티오스는 동의어에 해당한다.

23) Mounce, *Pastoral Epistles*, 566.

24) M. Dibelius-H. Conzelmann, *The Pastoral Epistles*, (Philadelphia: Fortress, 1972), 120에서 재인용.

25)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구-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등가 형식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역사비평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식의 한계성에 매인 유한자인 인간의 초월자에 대한 종교체험 내지는 신비체험에 대한 신앙고백서인가라는 대비되는 성서관이 양립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에 속한다. 성서는 하느님에 대한 신비체험의 전승이기 때문에 저자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모순된 진술이 존재하는 성서의 상이성이 설명된다.

동의 결과(숨결)로서 성서는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신앙의 진정성의 척도와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이정표가 된다.[26]

1.3 성서의 본질적인 특성: 구원의 지혜

성서의 본질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은 규정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만드는 성서'는 분사구문의 서술적 용법(τὰ ἱερὰ γράμματα ..... τὰ δυνάμενά σε σοφίσαι)으로 이루어진다. 명사 형태로 등장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다(σοφίζω)'의 제 2 단순과거 부정사의 의미에 나타나는 구원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매개로 하여 존재 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는 구원의 수단과 근거로써 지혜와 종교개혁 신학의 근간이 된 인간의 믿음이라는 이원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한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지혜(σοφία εἰς σωτηρίαν)는 인간의 인지력이나 인식력의 속성을[27]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하느님의 행위에 나타난 힘과 능력을[28] 의미한다. 바오로 학파의 신학에서 지혜는 단계적으로 표현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이 말하는 지혜 사상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8-31은 지혜를 4단계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1)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철저히 구별된다(비교: 1코린 2,6-7).[29] 2) 하느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월등히 지혜롭다. 3)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지혜이다. 4) 그리스도가 인간의 지혜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바오로 학파의 신학에서 지혜가 구원의 형식 논리라면 그 실질 논리는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보여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1코린 2,1-2). 인간 구속의 방편으로 그리스도와 지혜의 구분된 이분법의 병존을 말하지는 않는다.

---

26) 결국 여기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구별이 형성된다.

27)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 지혜에 대한 논의는 U. Wilckens, "σοφία, σοφός", *ThWNT* VII(1990), 465-475, 특히 467를 보라.

28) 특히 구약성서에서는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는 수공업적인 기술과 능력을 의미한다. G. Fohrer, "σοφία, σοφός", *ThWNT* VII(1990), 476-496, 특히 476.

29) 이 구별은 천상의 지혜와 지상의 지혜를 나누는 필로에게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설명하는 스토아학파의 문헌에서도 등장한다. Burton L. Mack, *Logos und Sophia: Untersuchungen zur Weisheitstheologie im hellenistischen Judentum*,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11-112, 특히 각주 1. 6을 보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혹은 구원을 위한 지혜는 결국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절실한 문제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굴레와 그 원인이 되는 욕망과 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즉 구원의 문제임을 암시한다. 동시에 이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포하여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느님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은총의 사건임을 선포해주고 있다.

1.4 신앙교육의 방향: 온전함

티모테오가 어려서부터 체득한 성서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은 하느님의 사람(ὁ τοῦ θεοῦ ἄνθρωπος)의 완전함이다. '하느님의 사람'의 정의는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에 해당하지만,[30]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2,4('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에 근거하여 사제계 문서의 인간 창조 기사에 언급된 하느님의 형상(창세 1,26-28)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의미할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람을 구약성서적인 배경에서 선지자와 같은 하느님의 대리자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존슨(Luke T. Johnson)의 배타적인 입장은[31] 복음의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그리스도교 집단의 사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17절 '하나'(ἵνα)-문장의 구조에서 성서의 최종적인 교육 목표와 방향은 형용사 '아르티오스'(ἄρτιος)와 동사 '엑사르티조'(ἐξαρτίζω)의 수동형 완료분사(ἐξηρτισμένος)의 서술적 용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인간이 성서의 교육을 통하여 도달하여야 할 이 완전함은 망각한 인간 본성에 대한 자각과 각성을 통한 하느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본성에 은폐된 하느님의 형상이 발현되도록 자극하고 본 모습대로 구현시켜 이상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의 상태와 모습으로 유도하고 인도한다.

성서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을 욕망으로 상실한 첫 사람 아담과 아담적인 불순종과 불신앙을 극복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유형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느님 앞에 서야 할 이상적인 인간, 즉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4,4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선언된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정의한다. 즉 그리스도교의 신앙 영성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완전함은 하느님의 뜻과

30) Mounce, *Pastoral Epistles,* 571.
31) Johnson,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421.

의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하여 완전함에 도달한(비교: 히브 5,8-9)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하느님의 본체와 형상인(필리 2,6; 2코린 4,4) 그리스도의 닮음(Imitatio Christi)에 놓여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신앙 영성의 방향을 인류구속사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주권적인 측면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한다(로마 8,28-30). 결국 성서를 통한 신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말하는 인간(하느님의 사람)의 완전함은 하느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 영성 교육의 근본적인 원리인 성서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2.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들

성서가 하느님의 사람들을 본래 창조된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성서의 교육적인 지혜의 특성을 통하여 자아성찰을 유도하여(비교: 히브 4,12-13) 그릇된 인간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교정하고 훈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성서는 스크록(Robin Scroggs)이[32]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문서이다.

2.1 교훈(διδασκαλία: teaching/Belehrung)

신약성서에서 총 24번 등장하는 가운데 사목서간에 15번 사용되는 전문용어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α, 교육)는[33] 당시의 그리스 세계에서는 능동적인 의미에서 지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교육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필로(Philo)에게는 훈련과 자기학습 외에도 적절한 안내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칠십인역에서 이 단어는 시나이 광야에서 십계명의 하사에 관계된 하느님의 뜻에 밀접하게 관련

32) R. Scroggs, "The Bible as Foundational Document",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49/1(1995), 17-30, 특히 23-25.

33) Karl H. Rengstorf, "διδασκαλία", *ThWNT*, II(1990), 163; Walter Bauer, *Woerterbuch zum Neuen Testaments*, (Berlin: de Gruyter, 1971), 380.

되어 있다. 사목서간에서 이 교훈은 신적 기원에 기초한 것으로 수용하고, 초대교회에서는[34] '교육내용의 총체'(Zusammenfassung des Lehrinhaltes)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구두 전승으로부터 후대에 전달된 것'으로 수용되었다. 학자들은[35] 이 '디다스칼리아'를, 교리로 정형화된 형식적인 체계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타종교와 구별되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상의 가르침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건들을 배척하고—결코 목적이 아닌 교육적인 방편과 수단일지라도—그 가르침의 사상 체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의적인 틀(dogma)을[36] 소유할 수밖에 없다(비교: 요한 16,7-13; 히브 6,1-2).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의 저술 목적 가운데 하나인—구체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만연하였던 영지주의 사상을[37] 토대로 부활을 부정하는 히메내오스와 필레토스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2티모 2,15-19)[38]—이단 사상으로부터의 공동체 보호를 위한 교리적인 지침은 당연한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교의학의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성서의 '교훈'은 전체 공동체의 대내적인 울타리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상적인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복음의 말씀(성서)에 입각한 정통적인 신앙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2.2 책망(ἐλεγμός: reproof/Zurechtweisung)

성서가 사상의 교의적인 체계(도그마)를 통하여 공동체의 대내적인 틀과 구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한다면 외부의 사견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의 침입과 접근을 배척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이것을 '엘렝모스'(ἐλεγμός, 책망)으로 표현하고 있다.[39] 신약성서에서 한 번 쓰인 단어인 '엘렝모스'는

---

34) Rengstorf, "διδασκαλία", 165.

35) Mounce, *Pastoral Epistles,* 570; Young, *Theology of the Pastoral Letters*, 74; D. Guthrie, *The Pastoral*, (Grand Rapids: Eerdmans, 1984), 164.

36) 도그마의 기능에 대해서는 G. Gloege, "Dogma", *RGG*, II(1963), 220-225를 보라. 글뢰게는 그리스도교 혹은 교회의 근본 가르침의 의미로 처음으로 시리아의 타티아누스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4세기에는 도그마가 신앙의 선포를 위한 근본원리로 정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37) 비슷한 연대에 기록된 요한묵시록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경고의 글 안에는 영지주의 이외에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신앙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종교혼합주의, 배금주의, 유대주의가 기술되어 있다(묵시 2,1-3,22)

38) 이 교의를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1티모 1,5.19; 2,15; 3,9를 근거로 사랑, 정결, 선한 양심 등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Young, *Theology of the Pastoral Letters*, 95를 볼 것.

39) Mounce, *Pastoral Epistles,* 570.

외부의 대적자와 침입자에 대한 태도와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9-20과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2,17-18의 히메내오스와 알렉산드로스, 필레토스에 대한 권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공동체 내부의 단속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책망의 교육적 기능은 그 선결조건으로 정통적이고 또한 정통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디다스칼리아'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체득이 요구된다. 자기 종교의 가르침의 특성과 핵심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그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아 교회의 니골라의 추종세력과 사목서간의 히메내오스와 같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그 실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릇된 사상의 유입을 통한 종교혼합주의적인 공동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성서는 비-정통적인 사상의 전파자를 거짓 교사, 혹은 거짓 형제, 혹은 적그리스도, 혹은 위선자 혹은 요란케 하는 자 등으로 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이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배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3 교정(ἐπανόρθωσις: correcting/Besserung)

'디다스칼리아'와 '엘렝모스'가 전체 공동체의 신앙영성의 방향과 삶을 추구하는 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와 관련된다면, '에판오르토시스'(ἐπανόρθωσις, 교정)는 개개인의 신앙과 구체적인 삶에 대한 개별적인 교육에 직결된다. 문자 그대로 잘못되고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교정이다. 그런데 이 교정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 즉 신 앞의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미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기에 이를 기준과 푯대로 삼아 이루어진다. 즉 교정의 축은 그리스도이고 그의 형상에 비추어 개인의 교정이 실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은 타인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문제와는 무관한, 즉 자신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지나친 점이나 습관, 버릇, 성품 등등을 하느님 앞에서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의 귀감이 되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여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한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교정(self-correction)에 해당한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토대로 교정이 가능해진다. 자신의 삶의 기준과 본보기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통하여 추구하는 자기교정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부합하기 위한 자기교육 방식이다.

2.4 훈련(παιδεία: training/Erziehung)

신앙 영성의 부정적인 요소와 내용을 개선하는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이 교정이라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요소와 내용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은 훈련에 해당한다. '파이데이아'(παιδεία, 훈련)는 본래 그리스 세계에서 가정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 성인의 세계로 진입하도록 돕는 과정이고 또한 마치 운동 선수의 훈련을 상기시키는 상벌이 포함된 훈육 행위를[40] 의미한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용어의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어린아이('파이스', παῖς)가 놓여있다.[41] 바오로 학파의 신학에서 이런 훈련의 전담자를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비되는 교육적인 관계에서 '파이다고고스'(παιδαγωγός, 초등교사)로 설명하여, 이 훈련이 높은 차원의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갈라 3,24). 그래서 훈련은 로크(W. Lock)가 말하는 것처럼[42]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훈련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본래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제공하던 교육 내용의 습득을 의미하던 이 용어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에서 감독관 없이 피교육자 스스로 자기훈련(self-training)을 뜻하는 의미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티모테오의 신앙의 스승인 바오로가 대 사도로 추앙받고 있음에도 ㄴ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훈련의 모습을 고백하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10-12에서 그 실례로 제시된다. 결국 이 교육과정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언행심사(言行心思)를 체득하는 도덕적, 인격적인 성화의 과정, 즉 Imitatio Christi의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결론

모든 종교의 신앙의 방향성과 사상 체계는 그 종교의 경전을 통하여 제시되고 규정된다. 그래서 종교의 경전은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스도교의 성서의 가르침은 특히 인간의 지혜의 산물로 규정하지 않고 우리의 연구 본문인 티모

40) G. Bertram, "παιδεία, κτλ", *ThWNT* V(1990), 596-624, 여기서는 624.
41) Ibid., 596.
42)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111.

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개입을 통한 초자연적이고 초인적인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 교훈으로 성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선언한다. 이 성서의 권위는 인간에게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교육적인 기능, 즉 교훈과 책망, 교정과 훈련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리고 대리적인 죽음을 통하여 단지 욕망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값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체와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하느님 앞에 서야 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인 완전함에 도달하게 하는 안내서 내지는 교과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로병사라는 존재론적인 혹은 실존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구원의 자유를 제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삶의 방향과 올바른 목적 지향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성서라고 인정한다면,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의 원칙은 유효하고 정당하다.

참고문헌

마이클 다우니,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옮김, 서울: 은성, 2001.

박익수, 『티모테오전.후서/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서동수, 「신약성서에 나타난 윤리적 공리에 대한 소고」, 『신약논단』, 20(2013), 225-265.

_____, 「마태복음 5:48에 나타난 인간존재와 실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 『지구촌 신학』, 13(2006), 48-71.

_____, 「마가복음 7:20-23에 나타난 인간의 마음과 Imitatio Christi」, 『신학과 목회』, 44(2015), 417-440.

_____, 「인간욕망의 극복을 위한 신앙영성의 원리에 대한 성서적 연구」, 『신학과 철학』, 24(2014), 225-253.

조던 오먼, 『가톨릭 전통과 그리스도교 영성』, 이홍근·이영희 역, 칠곡: 분도출판사, 1998.

Bauer, Walter., *Woerterbuch zum Neuen Testaments*, Berlin: de Gruyter, 1971.

Bertram, G., "παιδεία, κτλ", *ThWNT* V(1990), 596-624.

Blank, J., "Zum Problem 'Haeresie und Orthodoxie im Urchristentum", in *Zur Geschichte des Urchristentums*, ed. J. Blank, (Freiburg: Herder, 1979), 142-160.

Dibelius, M.-Conzelmann, H., *The Pastoral Epistles*, Philadelphia: Fortress, 1972.

Downs, David J., "'Early Catholicism' and Apocalypticism in the Pastoral Epistles", *CBQ*, 67/4(2005), 641-661.

Elliot, John H., "A Catholic Gospel: Reflections on 'Early Catholicism' in the New Testament", *CBQ*, 31(1969), 213-223.

Fohrer, G., "σοφία, σοφός", *ThWNT* VII(1990), 476-496.

Gloege, G., "Dogma", *RGG* II(1963), 220-225.

Guthrie, D., *The Pastoral*, Grand Rapids: Eerdmans, 1984.

Johnson, Luke T.,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imot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Colossian, to the Thessalonians, to Timothy, to Titus and to Philemon*,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61.

Lips, Hermann von, *Glaube – Gemeinde – Am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Lock, W.,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Edinburgh: T&T Clark, 1973.

Lohse, 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Kohlhammer, 1983.

Mack, Burton L., *Who Wrote the New Testament? The Making of the Christian Myth*, New York: Harper Collins, 1995.

_____, *Logos und Sophia: Untersuchungen zur Weisheitstheologie im hellenistischen Judentu*,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Maehlum, Helge, *Die Vollmacht des Timotheus nach den Pastoralbriefen*, Basel: Friedrich Reinhardt Kommissionsverlag, 1969.

McDonald, Lee M.,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Biblical Canon*, Peabody: Hendrickson, 1995.

Mounce, William D., *Pastoral Epistles*, Nashville: Thomas Nelson, 2000.

Oden, Thomas C., *First and Second Timothy and Titu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Prior, C. M. M., *Paul the Letter-Writer and the Second Letter to Timoth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Ramsay, William M.,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Grand Rapids: Kregel 1996.

Rengstorf, Karl H., "διδασκαλία", *ThWNT* II(1990), 163-168.

Roloff, J., "Pastoralbriefe", *TRE* 26(1996), 50-68.

_____, *Einfuehrung in das Neue Testament*, Stuttgart: Reclam, 1995.

Schmithals, W., *Neues Testament und Gnosis*, Darmstadt: WB, 1984.

Schnelle, U.,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Schott, E., "Kanon", *RGG* III(1963), 1116-1118.

Schuetz, E., *Werdende Kirche im Neuen Testament Eine Einfuehrung in die Pastoralbriefe*, Kassel: Oncken, 1969.

Scroggs, Robin, "The Bible as Foundational Document",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49/1(1995), 17-30.

Towner, Philip H., *The Goal of Our Instruction: The structure of Theology and Ethics in the Pastoral Epistles*, Sheffie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Vouga, F., *Geschichte des fruehen Christentums*, Tuebingen: Franke, 1994.

Wilckens, U., "σοφία, σοφός", *ThWNT* VII(1990), 465-475.

Wolter, M., *Die Pastoralbriefe als Paulustradition*,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Young, F., *The Theology of the Pastoral Lett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초 록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영성을 위한 성서의 교육적인 기능

서동수

성서 영감설을 토대로 성서는 이미 예수 당시의 유대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학과 삶의 원론적인 시금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에서 모든 성서는 구원을 위한 지혜의 책으로 규정되고 전 인류로 이해되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완전함이란 창조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하느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인간의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형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Imitatio Christi)은 하느님의 형상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14-17은 하느님 앞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영성의 방향과 목적을 의미하는 Imitatio Christi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며 훈련하는 네 가지의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오직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는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영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대헌장이 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의 길은 성서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신앙영성, 하느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 영감설, 성서의 교육 기능.

Abstract

Educational Function of the Bible for Christian Faith-Spirituality in 2Tim 3,14-17

Seo, Dong-Su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inspiration, the Bible occupies from Jesus' contemporary Judaism to today a special position as fundamental criterion for Christian theology and life. All scripture is defined in 2Tim 3,14-17 as book of wisdom for salvation and plays its educational part that the men of God as symbol of all human race could reach their perfective condition. Human perfection, as in creation narrative mentioned, is equated with recovering original condition of proto-human being as Imago Dei. Imago Dei is in general used to synonym of Imitatio Christi, because the New Testament declares Jesus Christ as God's image and likeness. 2Tim 3,14-17 evidently is proclaiming that the Bible functions as tools of teaching, reproof, correction and training for helping all people in accomplishing the ideal figure front the face of God, namely in realizing of Imitatio Christi which characterizes the orientation and final destination of Christian faith-spirituality. In these meaning, 'Sola Scriptura' of the Reformation still would be the absolutely inevitable Magna Carta to Christian faith-spirituality.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way of perfective human being before God begins with Bible study.

Key Words: Faith-spirituality, Imago Dei, Imitatio Christi, theory of inspiration, educational function of the Bible.

논문 투고일	2019년 3월11일
논문 수정일	2019년 5월 8일
논문게재 확정일	2019년 4월25일